

새 책

▶**꿈** 흘리는 소설(김재영 외 7명 지음)=현직 교사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제자들을 걱정하며,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지표가 되어 줄 8편의 소설을 가려 엮은 책이다. 8편의 소설 속에는 인터넷 방송 BJ, 공무원 시험 준비생, 카드사 콜센터 직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알바생 등 N포 세상에 ‘을’로 내던져진 청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창비교육, 1만5000원.



▶**장일순 평전**(지음)=민주화운동, 협동운동에 이어 한살림운동과 생명운동을 펼쳤던 무위당 장일순의 서거 25주기(5월22일)를 기념해 출간된 책이다. 그의 따뜻했던 삶과 심오하면서 폭넓었던 사상을 시대상과 함께 다루고 있다. 무위당이 평생 추구한 사상과 운동을 따르고 실천하는 모임 ‘무위당사람들’이 감수한 무위당 장일순의 첫 평전이다. 두레, 1만9000원.



▶**봉하노송의 절명1**(서주원 지음)=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하룻밤을 다룬 실록정치소설인 이 책을 전체 3권 가운데 1권이다. 소설 속의 현재는 2009년 5월22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동틀 무렵까지로 이번 1권은 밤 11시 무렵까지만 다룬다. 평사리, 1만5000원.



▶**오늘의 메뉴는 제철 음식입니다**(박찬일 지음)=점단의 요리 기술과 보존 능력에도 거스를 수 없는 ‘제철’이 지닌 위력이 있다. 이 책에서 박찬일 셰프는 봄날의 미더덕, 망게, 산나물, 여름날의 가지, 민어, 전복, 가을날의 포도, 메밀, 낙지, 겨울날의 딸기, 굴, 방어, 홍어 등 총 27가지 식재료를 깊이 살펴본다. 식재료마다 어느 달에 가장 살을 찌우는지, 어떤 방법으로 절정을 맞출 수 있는지를 풀어놓는다. 달, 1만4000원.



▶**나는 더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스티브 캔들러 지음, 장한라 옮김)=지칠한 ‘호구’에서 당당한 주인의 인생을 살게 하는 구체적인 51가지 기술들을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소개된 책이다. 저자는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독자로서 하여금 과거의 실패로 생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이끈다. 별곡, 1만5000원.



▶**여성을 위한 별자리 심리학**(주디스 베넷 지음, 신성림 옮김)=저자는 별자리라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전문지식인 심리학을 접목했다. 이 책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한 사람이 평생 하나의 별자리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주의 흐름에 별들이 움직이듯 사람들의 운명도 스스로 선택과 의지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덧붙여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소개한다. 이프북스, 1만8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리더십 위기 헤칠 해안과 삶 근본 지침 제시

존 헤네시의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겸손·진정성·봉사·공감 중시
풍성하고 적절한 사례 설득력
경험 통한 끊임없는 배움 강조

미국의 스탠퍼드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총장이자 현재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존 헤네시, 그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냈다.

이 책은 교수, 엔지니어, 창업자, 관리자, 장학 사업가 그리고 경영자로서 세계 최고 대학과 최고 기업 리더를 맡아온 존 헤네시가 자신의 리더십론과 인간 성장론을 10가지 원칙으로 집약했다. ‘성장의 조건’ 10가지에는 자신이 배우고 기른 지성과 지혜,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 그는 리더의 자질로 겸손, 진정성, 봉사, 공감이라는 4가지 덕목을 강조한다. 이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게 해주는 ‘용기’라는 원칙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인 ‘협업’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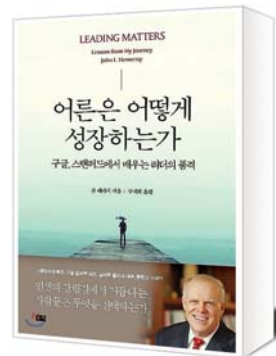
‘호기심’ ‘스토리텔링’ ‘유산’이라는 5가지 원칙도 곁들여 설명한다.

저자는 각 덕목에 자신이 겪은 풍성하고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헤네시는 오늘날 위기에 봉착한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할 해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의 근본 지침까지 들려준다.

이 모든 원칙은 저자의 오랜 리더십 경험 속에서 시행착오, 자기 성찰, 자기 혁신을 통해 효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당신의 그릇을 키울 삶의 무기는 무엇인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답을 ‘성장 능력’이라고 저자는 힘줘 말한다. ‘경험을 통한 배움’, 저자는 나이, 자리, 분야에 관계없이 항상 경험을 통해 배우고 고자 했다. 배운 바를 실행에 옮겼고 끊임없이 성장했다.

그는 전기공학과 컴퓨터과학 분



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RISC’(축소 명령 집합 컴퓨터) 아키텍처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그 공로로 컴퓨터 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했다. 구글과 시스코시스템스 등의 이사진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실리콘밸리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나이키 회장 필 나이트와 함께 나이키-헤네시 장학재단을 설립해 후진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구글, 스탠퍼드, 실리콘 밸리가 어떻게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지 궁금하고, 리더십에 대한 해안을 얻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을 권한다. 부키, 구세희 옮김, 1만6000원.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부실한 기념 반복 말고 살아있는 기억으로

최호근 고려대 교수의 ‘기념의 미래’

흥행을 건넌 유대 민족의 수난사를 보여주는 두 기념일이 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다. 그것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지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호근 고려대 교수의 ‘기념의 미래’는 이같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답은 이렇다. 그것들이 살아남은 비결은 그 속에 담긴 종교성, 밥상머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리 내어 읽는 행위, 정신은 유지하되 방식은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를 거듭한 결과였다. 기념의례가 생생한 기억을 만들려면 메시지와 현장성이 있어야 하고 몰입과 헌신의 마음을 촉발하는 종교성이 있어야 한다. 공감을 이끄는 힘이 없으면 슬픈 의례들은 ‘의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전국 도처 갖가지 기념시설이 세워졌지만 기억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진단

에서 이 책은 출발하고 있다. 갈증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부실한 기념의 반복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살아있는 기억을 맞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아예 과거에 대해 무심해질지 모른다.

박제화된 의례를 벗어나 문화의 색을 입히고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저자는 국내외 주요 기념 시설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제주도 봉개동 4·3평화공원, 잃어버린 마을, 무명전 할머니의 집, 하귀리 영모원 등 제주 4·3에 얽힌 장소도 들어있다.

그는 4·3 발발 70주년이 지난 시점에 주목하며 유족들이 세상을 뜨면 누가 희생자들을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애도를 연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 누군가가 한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겠지만 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 4·3평화공원은 행사를 치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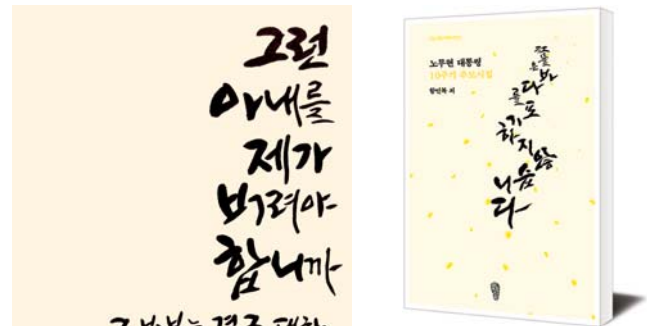
도 민망한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래서 4·3희생자가 기억되고 4·3이 기억되려면 기념의례에서도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국발 기념문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전통의 샘에서 영감을 얻고 글로벌 기념문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했고 어두운 과거 속에도 사람 향기 넘치는 스토리 발굴과 가공에 나서자고 했다. 교육을 염두에 둔 전시 등은 세대 간 기억전승의 지름길로 꼽았다. 고려대출판문화원, 2만1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노무현 10주기 추모시집

“영웅이 아니어서 더욱 좋은 사람”



그 바보는 결국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건국 이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4·3유족과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김수열의

퇴근길 집이 가까워질 무렵, 지역 국회의원이 내건 노란 바탕 펼침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 사랑사는 세상’. 어제(5월 23일) 서거 10주기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설치한 거였다.

제주 사람들은 그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김수열 시인은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린 해에 노 대통령과 같은 당의 대선 경선 후보가 단상에 올라 “그 후보의 장인 어른이 남포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공격하자 색깔론과 근거없는 모략을 중단해달라며 “그런……아내를……제가……버려야 할까?”라고 했던 일을 꺼내놓았다.

“그 바보는 결국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 되고/ 건국 이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4·3유족과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김수열의 제주 등 전국 시인 53명 참여 ‘그런 아내를 제가……’ 중에서) 김수열 시인 등 이 땅에서 시를 쓰는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추모시집 ‘강물을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를 냈다. 시집 제목은 2008년 노사모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방명록에 남긴 노 대통령의 친필 글에서 따왔다.

이번 시집에는 신경림 김준태 도종환 안도현 함민복 이상국 박남준 등 원로·중견 시인에서 제주 김신숙 현택훈 등 젊은 시인들까지 전국 각지 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인 노무현보다는 ‘남이 아프면/ 자기의 몸과 마음도’ 아파했던 그의 성품을 노래하는 시편들을 주로 내놓았다. ‘가난한 백성의 나라’, ‘누구도 부서지지 않고/ 서로에게 닿는 순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바람은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책장을 펼치다보면 시구절을 뽑아 써놓은 캘리그라피가 편편이 실려있다. 33명의 캘리 작가들이 신영복 서체나 각자가 만든 새로운 이미지를 활용해 ‘노무현 정신’을 글씨에 담아내려 했다. “작은 몸짓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었다”는 박명순 캘리 작가는 이런 말을 전했다. “지금도 그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제가 사랑했던 대통령, 제가 처음으로 존경했던 정치가, 그리운 이름 석자를 불러본다. 영웅이 아니어서 더욱 좋은 사람, 노무현.”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과수원, 밭, 유흥부지 소유자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